

나는야 새내기 선생님~



교사 맹 은

‘벌써 1년이 지났구나! 2014년을 어떻게 보냈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글을 쓰려고 하니 막상 무엇을 써야할지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물가물한 기억을 되짚으며 생각해보니 혜남학교에서 보낸 1년은 저에게 첫 학교, 첫 제자 그리고 느림의 미학을 알게 해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학교

입학식 전날 저녁, 간단히 짐 정리를 하다 내일을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드디어 내가 선생님?’

이사하고 신규교사 직무연수를 받기에 급급했는데 내일이 첫 출근이라니 과연 나는 아이들과 만날 준비가 되어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그 날 밤 부푼 기대감이 아닌 묘한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첫 출근! 잠을 설친 탓인지 허둥지둥 대면서 겨우 학교에 발을 댔었습니다.

첫날부터 시작된 어리바리 학교생활은 그야말로 생소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호칭되는 것도 어색했고 수업을 하는 것, 업무를 수행하는 것, 다른 선생님들을 대하는 것 모든 면에서 새로운 상태였지만 결론은 ‘무의 상태로 열심히 배우자!’ 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알아주신 건지 지나가다가 말 한마디 걸어주시며 격려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까지... 낯선 환경에서 이런 선배 교사들을 만나다니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에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되었습니다.

첫 제자

이 학교에서 만나게 될 역사적인 내 첫 제자들! 과연 어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레기도 하고, 내가 낯설어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지만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엔 주춤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호기심에 찬 눈으로 ‘맹은 선생님~ 미술 선생님~’ 하며 살갑게 다가와 주는 귀여운 아이들을 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장난도 치고 때론 바르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엄하게 대하기도 하면서 혹여나 아이들에게 상처준 것이 있을까 전전긍긍했지만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아이들은 저를 변함없이 따르며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어찌 안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 때면 아이들을 생각하며 미소 짓는 내 모습과 학교가 아닌 밖에 나가서도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내 학생, 내 제자는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림의 미학

아이들과 함께 주고받으며 수업할 생각에 즐거웠습니다. 매일 즐거운 일만 있을 수는 없다고 한명 한명의 특성과 원하는 것이 다른 아이들을 이끌며 수업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직접 느껴보니 어떻게 헤쳐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시작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났을 때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빨리빨리만 외치다 수업이 끝나고 또 반복되고...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 게다가 이유모를 행동들에 답답한 저는 이해하려기보다 저의 잣대를 대며 다그치지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속상해졌습니다. 주변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고, 선생님의 경험과 진심어린 조언을 들으며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나와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끼리 소통하며 즐기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란걸 느꼈습니다.

아직 신규티를 벗지 못했지만 제가 느낀 특수교육은 도전과 노력이 더욱 필요한 영역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좌절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노력! 천년동안 어두웠던 동굴도 한 순간의 작은 불빛으로 환해진다는 생각으로 더디더라도 조금씩 더 노력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 해 동안 참으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과 동료선생님들과 함께할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특수교사 화이팅!^^